

법무부, 제32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 외국인 노동자 에어건 인권 침해 사건 피해 외국인 체류 허가 시행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월 10일(금) 제32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발사하여 장기 손상을 입힌 사건의 피해 외국인을 위한 지원 방안 및 인권보호 방안 등을 관계 부처, 학계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논의하였습니다.

협의회에서는 ▲ 에어건 인권 침해 사건 피해 외국인 지원 방안, ▲ 2022년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추락 사고 당시 조종사를 구조했던 외국인 (스리랑카 국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에어건 분사로 장기 손상을 입은 외국인에게 체류자격(G-1) 변경을 허가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통해 국내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원 스마일센터에서는 피해 외국인 대상에게 곧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이후에도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피해자와 긴밀히 연락하여 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 법률지원, 중상해 피해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통번역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2년 8월 서해상 공군 전투기 추락 현장에서 비상탈출 여파로 팔, 다리를 다치고 낙하산 줄이 엉켜있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조종사를 구조한 공로가 인정되는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에게 범칙금 면제 처분을 하고, 체류자격(G-1) 변경을 허용하여 합법적인 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3월 9일부터 신설된 「이민자 권익보호 TF」에서 임금 착취,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건 발생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20개 언어로 인권 침해 피해 신고를 받아 범죄피해자를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와 핫라인 연계하는 등 외국인 인권보호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외국인·동포 인권보호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동포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책임자	과 장	강영우 (02-2110-4143)
		담당자	사무관	천승재 (02-2110-415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향숙 (02-2110-4058)
		담당자	사무관	주도현 (02-2110-4070)
	인권국 인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노일석 (02-2110-3673)
		담당자	사무관	신민철 (02-2110-3649)
	인권국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	책임자	센터장	하용준 (02-811-5200)
		담당자	사무관	여유진 (02-811-5202)